

주현절 제2주일/2021년 1월 17일

구약: 사무엘기상 3,1-10

서신: 고린도전서 6,12-20

복음: 요한복음서 1,43-51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1.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 고린도에 널리 퍼져있던 음행과 성적 방종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기 위한 것이자, 다른 한편으로는 엄격한 금욕주의로 몸을 편협하고 학대하는 영지주의자들의 가르침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방종(放縱)주의와 금욕(禁慾)주의는 인간의 몸에 대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인데, 영지주의의 물질에 대한 경시는 때로는 ‘나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는 도덕적 무관심주의로,¹⁾ 때로는 엄격한 금욕주의로 이끌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상극적으로 보이는 이 두 태도는 사실, 몸에 대한 같은 생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것은 몸이 자기 자신의 것이고, 그러므로 자기 것을 자기 뜻대로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영적 체험을 통하여 신성과 신적 지혜, 소피아를 얻은 영지주의자들에게 몸은 억압되어야 할 대상이거나, 혹은 어떤 도덕률에도 속박되지 않는 자유로운 것이었습니다.

1) C.K.바레트, 고린도전서, 한국신학연구소, 1985, 177.

2.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고린도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그리스 본토와 펠레폰네소스를 연결하는 지협인 서남단에 있습니다. 비록 토지는 비옥하지 않았지만, 남북으로는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동서 양 옆구리에 바다를 끼고 있어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주전 146년 로마가 이 지역을 점령하고 시민들을 학살하거나 노예로 팔아넘긴 후, 도시를 파괴함으로써 그 후 100년 동안 완전히 폐허가 되었는데, 주전 44년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을 따서 로마의 식민지로 재건되었습니다. 이 식민지 건설은 그리스의 로마화를 향한 결정적인 첫걸음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 지역은 그리스에서 로마제국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고, 로마 제국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헬레니즘적 도시문명을 대표하게 되었습니다.²⁾

카이사르와 아우구스투스는 이 지역을 군사적으로 안정시키는 동시에 도시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이루고, 경제적 착취를 용이하게 했으며, 동부 제국과 활발한 무역과 교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³⁾ 이런 식민지 정책에 힘입어 고린도는 다시 옛 명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주요 해상 교차로에 위치해 있다는 장점 때문에, 고린도는 무역과 정치적 소통의 중심이었고, 상업을 통해 부유한 도시로 부러움을 샀습니다. 특히 청동 제품이 유명했고, 수공업으로 생산된 소형 일용품이나 장식품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⁴⁾

대부분의 로마 식민지들은 퇴역군인들이 정착한 반면, 고린도로 보내진 사람들은 많은 경우 로마의 도시빈민 출신과 해방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이탈리아 시골지역에 있던 자신들의 농장으로부터 강제이주당한 사람들이었고, 해방된 노예들은 로마가 소아시아, 시리아와 유대, 그리스를 정복할 때 정복당한 사람들이었거나 그 후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에 유대인들과 회당이 있었다는 것도 이 사실을 뒷받침합니다.⁵⁾

2) 리처드 호슬리, 고린도전서 - 어빙턴 신약성서주석, 박경미역, 대한기독교서회, 2019, 33.

3) 리처드 호슬리, 고린도전서 - 어빙턴 신약성서주석, 박경미역, 대한기독교서회, 2019, 27.

4) 리처드 호슬리, 고린도전서 - 어빙턴 신약성서주석, 박경미역, 대한기독교서회, 2019, 28.

5) C.K.바레트, 고린도전서, 한국신학연구소, 1985, 18-19 참조. 리처드 호슬리, 고린도전서 - 어빙턴

그래서 그랬을까요, 고린도의 사회문화적 에토스는 철저한 개인주의였습니다. 낮은 출신 신분 때문에 고린도 사람들은 신분에 집착했고, 매우 경쟁적이었습니다.⁶⁾ 1세기 말에 이르러 고린도는 모든 도시들 가운데 가장 경쟁적인 도시라는 평판을 얻었고, 경제적인 부분에서 경쟁자들을 물리치기 위해서라면 서슴없이 무슨 짓이든지 하는 장사꾼들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도시는 외형상 호화롭고 휘황찬란했지만, 그 안의 시민들은 품위는 물론 교양도 없고, 타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빈부격차는 말할 수 없이 양극화되었고, 정신적으로도 공허한 도시였습니다.⁷⁾

3. 사도행전에 의하면 바울은 아테네를 방문한 이후, 주후 50년 3월경에 고린도에 도착했는데(행 18,1), 그곳에는 이미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고, 바울은 비교적 자유롭게 회당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바울은 이방 그리스도인들의 선교로 방향을 바꾸어, 주후 51년 9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렀다고 합니다.⁸⁾ 그 후 시리아를 거쳐 에베소에 도착한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3개월 동안 머물렀는데,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체류하던 주후 53년 말 혹은 54년 초에 쓴 것으로 추정됩니다.⁹⁾

당시의 고린도 교회의 상황은 바울에게 큰 상심과 슬픔을 안겨주었음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여러 차례 방문하려고 했다는 것과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사실은 네(4)통이나 되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이 네 편지들 가운데 고린도 전-후서, 두개의 편지만이 보존되었고, 다른 두통의 편지는 유감스럽게 분실되었습니다.¹⁰⁾

주후 50년대의 고린도 교회는, 다른 초대교회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직 온전한 구조와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교인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분열되어 있었습

신약성서주석, 박경미역, 대한기독교서회, 2019, 27.

6) 리처드 호슬리, 고린도전서 - 어빙딘 신약성서주석, 박경미역, 대한기독교서회, 2019, 35.

7) 리처드 호슬리, 고린도전서 - 어빙딘 신약성서주석, 박경미역, 대한기독교서회, 2019, 36.

8) C.K.바레트, 고린도전서, 한국신학연구소, 1985, 21.

9) C.K.바레트, 고린도전서, 한국신학연구소, 1985, 22.

10) C.K.바레트, 고린도전서, 한국신학연구소, 1985, 29.

니다(고전 1,12). 구성원들은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고전 1,26). 강제이주당한 빈농출신과 해방된 노예 등,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였는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도 내가 높으네, 누구는 낮으네 하면서 자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기와 다툼은 더 심해졌습니다(고전 1,27-29; 3,3). 특히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다투는 신도들도 있었고(고전 6,1-7),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 때문에 다툼이 생겼습니다(고전 8,1-13). 계모와 사는 아들도 있었고(고전 5,1), 음행과 탐욕, 우상숭배와 약탈 등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났던 것입니다(고전 6,8).

사도 바울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그런 성적 방종 자체만이 아니라, 그런 일에 대하여 교회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고전 5,2).¹¹⁾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음행이나 탐욕을 부리거나, 약탈하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밖으로 나가지 않는 한, 세상 사람들과 사귀지 않으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바울은 인정합니다. 바울이 충격을 받은 것은 교회 안에도,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이 실천되고, 세상을 심판해야 할 교회 안에서조차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을 숭배하고, 사람을 중상하고, 술 취하고, 약탈하는 신도들이 있다는 것이지요(고전 5,10-11).

이런 많은 도덕적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음행과 금욕이라는 몸에 대한 극단적인 입장의 대립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한편에는 신적 세계에 대한 지식, 소피아를 얻은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무엇이든지 허용된다는 생각에 당시의 관습적인 도덕률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¹²⁾ 이들은 ‘모든 것이 나에게 허용되어 있다. 그러니 내 소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자신의 몸은 자기에게 속한 것이니, 내 몸을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주장하면서, 음행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일종의 자유방

11) 리처드 호슬리, 고린도전서 - 어빙턴 신약성서주석, 박경미역, 대한기독교서회, 2019, 98.

12) 리처드 호슬리, 고린도전서 - 어빙턴 신약성서주석, 박경미역, 대한기독교서회, 2019, 98.

임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고전 10,23-24).

바울의 주된 관심사는 ‘공동체의 연대’이자 ‘상호호혜’였습니다.¹³⁾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2천 년 전의 고린도와 비슷합니다. 언어표현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 ‘천민자본주의’, ‘졸부들의 천국’, ‘안하무인적 오만함’, ‘무한경쟁’, ‘빈부양극화’, ‘성차별’, ‘성적 방종’, ‘황제(권력)숭배’, ‘우상(황금)숭배’, ‘그치지 않는 소송전’ 등 고린도를 지배했던 에토스와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현실의 에토스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제시했던 해결책, 곧 공동체의 연대와 상호호혜도 어찌면 예나 지금이나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쟁과 ‘성과급 이데올로기’라는 우상 숭배에 사로잡힌 현대의 시장경제 안에서 함께 잘 사는 방법으로 ‘콰무니타스 이코노미’를 제안하는 이탈리아 정치경제학자 루이지노 브루니도 바울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¹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고린도에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주장하면서, 육체를 억압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한 것이고, 배는 음식을 위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이것도 저것도 다 없애 버리실 것이다’(고전 6, 13)고 하면서 음식과 육체 모두를 부정하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몸은 참 자아, 영혼 또는 영으로부터 분리된 열등한 존재의 차원이었던 반면, 바울에게 몸은 타인과의 실제적인 상호관계 속에 체현된 전체로서의 자아였습니다.¹⁵⁾ 바울이 의도적으로 육과 몸을 분

13) 리처드 호슬리, 고린도전서 - 어빙턴 신약성서주석, 박경미역, 대한기독교서회, 2019, 42.

14) 루이지노 브루니, 숲과 나무 - 인간적 경제를 위한 10가지 이야기, 강영선 역, 상상, 2020.

리하여 말하는 것은, 육을 폄훼하거나 열등한 존재로 여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육이 물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전체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인간중심적인 삶을 영위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한다고 한 것입니다.¹⁶⁾

바울은 육체와 영혼, 사멸할 세상 안에서의 삶과 영원불멸한 영적 삶을 분리하는 관점을 거부합니다.¹⁷⁾ 육은 몸을 구성하고, 몸은 육을 포함한 전인적 존재입니다. 아니 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을 모시는 성전입니다(고전 3,16-17). 우리의 몸이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 되는 것은 우리 몸이 더 이상 물질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영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¹⁸⁾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몸은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 자기 자신에게가 아니라, 우리를 값어치 치르고 사신 분, 곧 자기 목숨을 바쳐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지요(고전 7,23). 이로써 바울은 고린도 사람들의 철저한 개인주의를 반박하면서, 인간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과의 관계 안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¹⁹⁾ 바울에게 인간의 자아는 몸으로 구현되는 것이었고, 삶은 근본적으로 사회적이고 관계적이며 역사적인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에게 구원은 몸적(전인적)이고, 사회적인 삶으로부터의 개인적 초월이 아니라,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를 완성하는 것이며, 공동체적 연대성 안에서 사회적이고 몸적(전인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²⁰⁾

바울은 우리가 몸으로 해야 할 일은 음행과 같이 우리 육체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라고 합니다(고전 6,20).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서

15) 리처드 호슬리, 고린도전서 - 어빙턴 신약성서주석, 박경미역, 대한기독교서회, 2019, 113.

16) C.K.바레트, 고린도전서, 한국신학연구소, 1985, 182.

17) 리처드 호슬리, 고린도전서 - 어빙턴 신약성서주석, 박경미역, 대한기독교서회, 2019, 114.

18) C.K.바레트, 고린도전서, 한국신학연구소, 1985, 182.

19) 리처드 호슬리, 고린도전서 - 어빙턴 신약성서주석, 박경미역, 대한기독교서회, 2019, 115.

20) 리처드 호슬리, 고린도전서 - 어빙턴 신약성서주석, 박경미역, 대한기독교서회, 2019, 116-117.

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갈 5,13)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개인적 욕망충족의 자유가 아니라, 섬김을 위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사람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같은 편지에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고전 9,19)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우리가 전인격적이고 구체적인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스스로 사도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고전 9,12-18),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들의 자유에 대한 자제와 권리에 대한 포기를 호소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권리의 포기는 약한 자들, 끈기가 없는 자들, 끈질기지 못한 자들, 자기 주관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이 취하는 비겁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권리의 포기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오직 진정으로 강하고 관대한 사람, 무슨 일이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사람만이 취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고전 10,31).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는 주장은 단지 육체를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여기고, 자유를 방종과 동일시하는 것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주장은 금욕주의를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 이웃, 자연과의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장회익 교수님의 주장처럼, 우리의 삶은 ‘온 생명’에 속해 있고, 생명의 그물망에 상보(相補)적, 상생(相生)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4. 오는 1월 20일이면, 우리나라에서 ‘코비드-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지 꼭 1년이 됩니다. 2021년 1월 16일 현재, 전 세계 총 감염자는 누적 94,263,851명,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는 누적 2,016,290명으로 집계되었고, 우리나라 총 누적 감염자는 71,820명, 사망자는 1,236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에 코비드-19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투병중인 환자들, 목숨을 걸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방역 활동에 나선 의료진들과 공직자들, 방역에 동참하면서 경기침체와 생활고에 시달리는 영세자영업자들,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기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비드-19’와 같은 이른바 인수공통감염병과 기후위기는 발전과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자연파괴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것은 오만한 인간 중심주의의 결과인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고 하고 자신이 운명의 주인이 되려고 했을 때, 인간은 죽음과 함께 지배하는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바울이 말했듯이(롬 5,17; 6,23), 인간이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유를 무책임한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은 결국 모든 피조세계의 파멸로 인도할 것입니다. ‘내 몸이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거나,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누가 상관이나’는 오만한 태도는 처음에는 자기 자신의 몸을, 나아가 생명의 관계망을, 그리고 마침내 하나 뿐인 지구행성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하나 뿐인 지구를 살리고, 파괴된 인간과 자연의 관계, 분열된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길은, 우리 몸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 인간에게 배꼽이 있다는 사실보다 더 현실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물리학자이자, 100만 명의 농부들과 유기농 농사를 일으키고 있는 반다나 시바는 ‘에고(ego)에서 에코(eco)로’를 제시합니다. 에고는 가장 궁극적인 자기중심적 사고이고, 스스로와 타인을 분리하면서 탐욕이 한정 없이 자라게 합니다. 그러므로 탐욕으로 움직이는 ‘자기중심적 세상’(egocentric world)에서 나와 지구의 삶을 평화로이 영위하는 ‘생태중심 세상’(ecocentric world)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²¹⁾ 그렇습니다.

생태중심세상에서 인간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설교 후 기도>

주님의 목숨으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성령의 성전으로 삼으신 주님,
우리가 우리 몸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병든 우리 몸을 치유해주시고,
파괴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코비드-19의 세계적 대유행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자가 생긴지
꼭 1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지구촌을 불쌍히 여기시
어, 이 환난이 곧 지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감염병의 확산과 장기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여, 우리가 정성으로 준
비한 예물, 기쁜 마음으로 봉헌하오니,
은혜와 생명의 주님,
어려운 가운데서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바치는 손길 위에 강복하시
옵소서.
하여, 우리가 사는 동안 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돈을 쫓다
가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딤후 6,10).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보

21) 반다나 시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 in: 안희경, 오늘부터의 세계 - 세계
석학 7인에게 코로나 이후 인류의 미래를 묻다, 메디치, 2020, 219.

물 창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서 밭에 비를 내려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우리가 꾸어 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게 하시고(신 28,12),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고후 6,10)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